

3대 국제스포츠대회 '패키지 법' 발의

한·일 정상 '북핵·경제위기' 공조 재확인

독도·과거사 등 의제 제외... '셔틀 외교' 정착 주목

이정현·정의화 의원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 지원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이정현(비례대표) 의원과 정의화 의원은 28일 기존 ‘2011년 대구세계육상대회 및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 광주 U대회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26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안의 명칭은 ‘2011대구세계육상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바뀌게 된다.

이 의원은 이날 또 광주 U대회와 관련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2011대구 육상·2014인천亞 특별법에

2015 광주 U대회 국가지원 포함토록

이번 지원법은 광주 U대회 조직위원회 설립과 관련사업 지원 등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여수박람회 지원법을 준용, 옥외광고를 통해 대회기금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하고 조직위에서 대테러·안전대책을 위해 국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광주 U대회 유치 확정 한 달여 만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국제경기 지원법과 동시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서는 ▲기부금의 과세 특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 산입 특례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용 수입물품(국내제작 곤란한 것)에 대한 관세 경감 및 부가가치세 면제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등이 광주 U대회에 적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광주 U대회는 광주 시민의 놀라운 의지와 열정을 바탕으로 광주시는 물론 정부와 국민의 성원이 하나로 결집한 성과”라며 “세계적인 첨단산업도시, 문화중심도시로 거듭나는 광주가 이제 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통합지원법안으로 추진한 데 대해 “내용과 효과가 동일하고, 법적정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대구, 인천대회 지원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대회가 임박하면서 대구, 인천에서 정부지원을 추가 요청할 경우 광주도 동일법에서 동일한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 등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올 정기국회에서 광주 U대회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 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여·야의원들은 물론 국회 및 관련 정부 부처와의 접촉을 시작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한·일 단독정상회담에서 아소 다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지난해 7월 일본의 중등교과서 해설서 독도영유권 명기 강행으로 중단됐던 양국 셔틀외교가 지난 1월 아소 총리의 방한과 이번 이 대통령의 방일로 정착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았다.

두 정상은 지난 1월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 때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상호 방문해 현안을 협의하자는 데 합의했고, 이날 회담도 그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게 양국 외교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두 정상은 다음달초 도쿄에서 개최되는 ‘한·일 중소기업 CEO 포럼’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으며, 특히 이 대통령은 국내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일본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세일즈’ 활동도 벌였다.

두 정상은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독도나 역사왜곡 문제 등 양국간 민감한 이슈는 회담 공식의제에서 제외

되고 언급을 자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 문제가 여전히 양국관계에 걸림돌로 남아있으나 ‘발등의 불’인 북핵 문제와 경제위기 극복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를 잠시 뒤로 미루고 협력강화를 모색하는 게 우선이라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김형욱, 佛 양계장서 이종간첩에 살해됐다”

김경재 前 의원 내달 신간 출간

살해 주도 '박정희 아닌 차지철'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부장이 프랑스 파리에서 납치돼 위장 간첩에 의해 파리 근교의 한 양계장에서 살해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경재 전 의원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책 ‘박정희 시대의 마지막 20일’을 다음달 2~3일께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 책에서 “김형욱은 1979년 10월 7일 파리의 한 카페에서 도박을 하던 중에 중정요원에 의해 납치됐다”며 “한 중정요원

이 한국 여성이 차에서 기다린다고 김형욱을 유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암살 실행조는 2명이었고 중정요원 3명이 이를 도왔다”며 “암살실행조 가운데 조모씨가 차에 탄 김형욱의 목을 쥘어 실신시킨 뒤 지갑, 휴대 등 김형욱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소지품을 빼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암살조는 프랑스 파리에서 서북부 방향으로 4Km 떨어진 양계장에 가서 김형욱을 닭사료용 분쇄기에 넣어 처리했다. 현장엔 이스라엘 정보부 ‘모사

드’에 파견돼 훈련받고 있었던 청와대 경호실 직원 과모씨가 있었다”면서 “이는 조씨의 증언을 3년간 간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모씨에 대해 “경남 진주 출신의 조씨는 서울의 사립대를 나왔다”고 밝혔다. “조씨는 1979년 청와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술을 마셨고 이 자리에서 ‘김형욱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뭐, 그럴 것 없어’라고 답했다”며 “김형욱 암살지시 주역은 차지철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로 추방됐으며 중정의 회유로 전향했다”며 “조씨는 전향 선언 뒤 이종스파이 노릇을 하다 북과공작대 요원이 됐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김형욱 암살지시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씨는 1979년 청와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술을 마셨고 이 자리에서 ‘김형욱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뭐, 그럴 것 없어’라고 답했다”며 “김형욱 암살지시 주역은 차지철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약물중독 잦은, 수시로 위 세척”

세 자녀 보도 밝혀...죽음 둘러싸고 의혹 증폭

지난 25일 갑작스럽게 숨을 거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생전에 약물 과다복용으로 수시로 위 세척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영국 선데이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잭슨의 세 자녀의 보도로 일했던 그레이스 트와라바는 잭슨이 평소 여러 종류의 진통제를 섞어 복용하는 바람에 자신이 수시로 위세척을

해줘야 했다고 밝혔다.

트와라바는 잭슨이 마취성 진통제에 중독돼 있었다면서 “나는 수차례 잭슨에게 위 세척을 해줘야 했다. 그는 언제나 식사를 너무 적게 했고 (진통제를)너무 많이 섞어 먹었다”고 말했다.

트와라바는 잭슨의 어머니 캐서린과 여동생 제넷이 나서서 잭슨이 약

물중독 치료를 받도록 설득해달라고 도움을 청했지만 잭슨은 자신을 배신했다며 트와라바를 나무랐고 지난해 12월 해고했다.

또한 잭슨의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잭슨이 다음달 런던에서 열릴 예정이던 콘서트 전에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인터넷판에 게재된 잭슨의 전기작가 이언 헬퍼린의 글에 따르면 잭슨은 이미 죽기 수개월 전부터 공연은 커녕 때때로 말하는 것조차도 힘겨워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연합뉴스

제주 여행

제주 여행 패키지

골프 투어

골프 투어 패키지

제주 열빙투어(고통제)

제주 열빙투어(고통제)

신 행 안내

신 행 안내

무등산 정기산악

무등산 정기산악

코베아 오토캠핑

코베아 오토캠핑